
문서번호 : 10-05-사무-05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서선영 변호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전송일자 : 2010. 5. 27. (목)
전송매수 : 총 13 매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조치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2010. 3. 4.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3개 여월 간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0. 5. 27.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 촛불집회 2주년이 지난 지금도 집회참가, 광고주 불매운동 등으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시민들을 폭행했던 경찰 지도부는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촛불백서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작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 이번 촛불백서 발간을 계기로 2년 전 함께 걷던 그 거리를 기억하면서 촛불의 정신을 살려가는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 자료 1. 촛불백서 목차
첨부 자료 2. 발간사와 권두언

2010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 1. 촛불백서 목차

발간사

권두언

제 1부 총설 2008년 촛불과 민변의 활동

제 2부 민변의 촛불관련 주요 활동과 변론

국산 쇠고기 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사건

약식기소에 불복하기!_정식재판청구에서부터 판결선고까지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대 활동과 평가

촛불집회 관련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촛불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위헌법률심판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사건_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촛불집회참가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

PD수첩 사건

촛불집회 관련 단체 정부보조금 중단사건

제 3부 촛불 관련 자료

사진으로 본 촛불과 민변

촛불집회 주요일지

민변 촛불 일지

촛불 관련 대통령, 검찰 등의 주요 발언

민변 성명서, 논평과 보도자료 모음

쇠고기협상에 대한 민변의 문제제기

촛불 관련 매뉴얼과 유인물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에 대한 민변의 대응

제 4부 밖에서 본 촛불과 민변

한 촛불시민이 본 민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촛불이 본 민변

40대 중반에 경험한 추억의 닭장차 투어

촛불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촛불 보도에 민변이 있었다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 명단(가나다순)

발간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계기로 펼쳐진 촛불시위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광우병 문제와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우병은 그 피해가 단기간 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고, 불과 2년이 지난 현재 그 피해가 우리 눈앞에 목격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광우병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선부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촛불시위는 광우병의 위험성 때문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던 시장개방과 경제 주권의 문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 일상화된 소통부재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 그리고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 국민 정서가,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하여, 여러 달 동안 국민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촛불시위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어만 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절차는 국민들의 끝없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국정은 더욱 일방독주로 치닫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2년전의 촛불시위가 가지는 의의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촛불시위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여전히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변에게 있어 촛불시위는 어느 다른 활동에 비추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모든 영역의 법률분야에 민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그 활동 양태도 단순히 법정에서 출석하는 고전적인 변호사 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변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감시하거나 방지하고, 연행된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연행 장소로 출동하였으며,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정까지 이어지는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시위와 직접 관련된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각종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시위와 함께 불붙은 불매운동 등에 대한 변론 등 전 분야를 포괄하여 법률 지원활동을 수행했고, 민·형사와 헌법소송 등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회원들은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였고, 그 덕분에 민변은 시민의 수호자라는 영예로운 명칭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 변호사 여러 명이 다치고 심지어 연행되어 기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시위과정에서 민변이 보여준 역할은 그 후 민변의 여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변에 대한 신뢰 및 기대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력을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민변 활동의 성격과 힘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로소 활동 백서를 내고 평가를 시도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법률문제가 이제야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퇴영적인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과정들을 성찰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그간에 민변이 수행해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위의 총체적 의미를 되살리는 작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야 하는 선거 국면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대의제로서의 선거와 촛불집회와 같은 자발성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양대 축입니다. 백서의 발간을 계기로 2년 전 함께 걸던 그 거리를 기억하면서 촛불의 정신을 살려가는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변호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0.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권두언

- 2008년 촛불의 의미와 민변활동에 대한 평가 -

1.

2008년 5월 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처음에는 청계광장에서 여중생들을 주축으로 시작되어 후에는 횃수를 거둬할수록 남녀노소,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하면서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촛불. 2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촛불을 회상해 보면 여전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한편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 강부자내각의 구성 등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조치와 학교자율화, 대운하 추진, 반서민적인 정책의 일방적 강행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중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08년 4월 17일 한미쇠고기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국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오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둘러 미국에 선물을 안겨준 셈이었다.

뒤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연령이나 부위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한다는 한미쇠고기협상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야당은 쇠고기협상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협상철회를 요구하였다.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4월 29일 MBC PD수첩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그 후 인터넷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던 중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중고생들이 주축이 되어 제1차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촛불문화제는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연이어 계속되었다. 경찰이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5월 6일에는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였고,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2일 대국민담